

# 부모의 음주정도와 대학생 자녀의 정신건강 관련요인

현명선<sup>1</sup> · 강희선<sup>2</sup> · 김현례<sup>3</sup>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교수<sup>1</sup>,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sup>2</sup>,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시간강사<sup>3</sup>

## Parents' Drinking Behavior and Factors Related to Mental Health of their University Student Offspring

Hyun, Myungsun<sup>1</sup> · Kang, Heesun<sup>2</sup> · Kim, Hyunlye<sup>3</sup>

<sup>1</sup>Professor, College of Nursing, Ajou University, <sup>2</sup>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sup>3</sup>Part-time Instructor,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factors related to mental health of university student offspring according to their parents' drinking behavior. **Methods:** A cross-sectional design was used in this study. A convenience sample of university students were recruited from three universitie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Korea. Data were collected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with 547 university students. The scales used for this study were the Korean version of the Children of Alcoholics Screening Test (CAST-K), Symptom Checklist-90-Revision (SCL-90-R), Rosenberg's Self-esteem Scale, and the Way of Coping Checklist. **Results:** Participants we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nondrinking-parents group (53.5%), social drinking-parents group (21.8%), and problem drinking-parents group (24.7%). Participants whose parents were problem drinkers ha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on all the subcategories of SCL-90-R compared to those of other groups. In the participants group whose parents were problem drinkers, mental health problem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to passive coping methods and a negative correlation to self-esteem. There was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positive coping methods.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e mental health of university students may be negatively affected by their parents' drinking behaviors. Special attention and early interventions are needed for university students whose parents have drinking problems.

**Key Words:** Alcohol drinking, Parent, Mental health, Adult children

##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알코올 중독은 본인뿐 아니라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친다. 특히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인 경우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자녀에게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에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들(Children of Alcoholics, COA)은 각 발달단계에서 요구하는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정신병리적인 문제를 가질 위험이 많은 채 성장하게 된다(Liberman, 2000).

부모의 문제음주가 자녀에게 끼치는 영향을 보면, COA들이 성장했을 때 COA가 아닌 사람들(non-COA)보다 알코올리즘이 될 취약성이 높아지는 등 유전적 요인으로 직접적 영향을 미치거나(Hussong & Chassin, 2004), 우울

**주요어:** 음주, 부모, 정신건강, 성인아이

**Address reprint requests to:** Kim, Hyun Ly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134 Shinchon-dong, Seodaemun-gu, Seoul 120-752, Korea. Tel: 82-2-2228-3279, Fax: 82-2-392-5440, E-mail: dalim1977@hanmail.net

- 이 논문은 2008년 아주대학교 의료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사업임(No. 3-2008-0210).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jou University Medical Center (No. 3-2008-0210).

투고일 2011년 9월 23일 / 수정일 1차: 2011년 11월 12일, 2차: 2011년 12월 5일 / 게재확정일 2011년 12월 8일

및 불안을 야기하는 심리·사회적인 환경적 요소로 작용하여 자녀의 성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Kim, 2006). 그리고 COA들은 행동 및 정서적 문제 발생에 취약하며, COA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가족으로부터 받는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되어 여러 가지 심리사회적 문제 발생에 취약하게 된다(Rangarajan, 2008). 또한 이들은 아동이나 청소년기에 의존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지 못한 채 발달과정을 거쳐 건강하고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게 된다(Ellis & Zucker, 1997). COA 중 만 18세 이상인 알코올 중독자 성인자녀(Adult Children of Alcoholics, ACOA)의 비율에 관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Kim, Jeon과 Kim (2004)의 연구에서는 36.0%,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Kim (2007)의 연구에서는 33.2%가 알코올 중독자의 성인자녀로 보고되었다.

대학생은 초기 성인기 혹은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인생의 발달과정상 급격한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지며,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이루고 개인적 정체감을 확립해야 하는 시기이다(Kim, 2007). 또한 이 시기는 약물오용과 같은 위험건강행위가 증가하고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습득하는 성장발달의 중요한 시기이다(Hussong & Chassin, 2004). 따라서 COA들이 부모의 음주문제로 야기된 부정적인 가정환경이나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으로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있었던 해결되지 못한 심리적 문제와 성공적인 발달과업의 완수에 손상을 가진 채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 있기에 청소년 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에 관심이 요구된다(Kim, 2006).

대부분의 알코올 중독자 자녀는 가정 내에 건강한 역할 모델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내적 자원이 빈약하고 외적인 환경적 지지가 빈약하여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이 취약하다. 이에 이들은 적극적인 문제해결 방법보다는 회피적인 대처유형을 사용하며 이로 인해 정신건강문제가 많이 발생한다(Yang & Lee, 2005). 미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Hussong과 Chassin (2004)도 ACOA들이 다른 동료들보다 적극적인 대처유형이 부족함을 보고한 바 있어, ACOA들의 대처유형이 다른 또래들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알코올 문제는 자녀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가져온다. 즉 부모가 음주문제를 가진 경우 그렇지 않은 가족에 비해 가족 간의 갈등이 많거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부모는 자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로 인해 아동은 자신에 대한 지각을

부정적으로 형성하게 되며 결과적으로는 자아존중감의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Rangarajan, 2008). 또한 Kim (2010)도 COA에게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성향이 있고 죄책감이나 자기비난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는 자아존중감의 저하를 초래한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알코올 중독자의 가족과 관련하여 수행된 연구들을 보면, 주로 알코올 중독자의 배우자(Park & Yang, 2005)를 대상으로 했거나 중고등학교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Pai, 2005; Yang & Lee, 2005)가 대부분이다. 반면에 알코올 중독자 성인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알코올 중독자의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대학생 적응에 관한 연구(Kim, 2007), 음주문제에 관한 연구(Kim, 2006)와 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Cho, Chun, & Hyun, 2008)가 있을 뿐이며, 문제음주 행위를 하는 성인 자녀의 정신건강에 관해 구체적으로 파악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제음주 행위를 하는 부모를 둔 대학생 자녀의 정신건강 관련요인을 정신건강문제, 대처유형 및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음주문제가 있는 부모를 둔 대학생 자녀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부모의 문제음주 정도에 따른 대학생 자녀의 정신건강 관련요인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부모의 문제음주 정도에 따른 각 집단에서의 정신건강문제, 대처유형, 자아존중감 정도를 비교한다.
- 부모의 문제음주 정도에 따른 집단 간의 정신건강문제, 대처유형,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 부모가 문제음주 집단인 대상자의 정신건강문제, 대처유형,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부모의 문제음주 정도에 따른 대학생 자녀의 정신건강문제, 대처유형, 자아존중감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관계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중인 18세 이상의 학생을 근접모집단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은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하는 3개의 대학교, 5개의 학과에서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에 동의하고 설문지 조사에 응한 대상자는 총 553명이었으나 불성실한 응답을 포함하는 설문지를 제외한 542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되었다. 그 중 279명은 자연계열, 263명은 인문계열 학생이었다. 대상자 수 산정은 G\*Power 3.0에 의하면, 효과크기를 .25, 유의수준은 .05, 검정력을 .80, 집단의 수를 3개 군(비음주 부모군, 사회적 음주 부모군, 문제음주 부모군)으로 하였을 때 159명의 대상자가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자료수집기간은 2009년 3월 17일부터 4월 10일이었으며,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기관연구윤리심의실에서 연구 수행에 대한 심의를 거쳤다(승인번호: AJIRB-CRO-08-194). 자료를 수집하기 전에 각 자료수집 장소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들에게 본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하여 자료수집에 대한 허가와 협조를 구하였으며, 자료수집은 강의가 끝난 다음 연구자가 교실을 방문하여 시행하였다. 본 연구진은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자료수집방법에 대해 설명을 제공하였으며, 연구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았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무기명으로 처리될 것이며,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고, 설문지에 응답하는 중간에 연구참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어떠한 영향도 없을 것임을 설명하였다.

## 3. 연구도구

### 1) 한국어판 알코올 자녀 선별검사(The Korean version of the Children of Alcoholics Screening Test, CAST-K)

부모의 문제음주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어판 알코올 자녀 선별검사(CAST-K)를 이용하였다. 본 도구는 Jones (1983)가 개발하고 Kim, Chang과 Kim (1995)이 한국어로 번역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것으로 총 30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예(1점), 아니오(0점)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본 도구에서 Jones (1983)가 제시한 부모의 음주 정도에 관한 분류(0~1점은 비음주, 2~5점은 사회적 음주, 6~12점은 과음주, 13점 이상은 문제성 음주)와 Kim 등 (1995)이 제시한 알코올중독자 자녀 절단점(6점 이상)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총점이 0~1점은 비음주 부모, 2~5점은 사회적 음주 부모, 6점 이상은 문제음주 부모로 분류하였다. 본 도구의 신뢰도 점수는 개발 당시에는 Cronbach's  $\alpha = .98$ 이었고(Jones, 1983), Kim 등(1995)의 연구에서는 .94, 본 연구에서는 .95였다.

### 2) 간이정신진단 검사(Symptom Checklist-90-Revision, SCL-90-R)

대상자의 정신건강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Derogatis (1977)에 의해서 개발된 자기보고식 다차원증상목록을 국내에서 Kim, Kim과 Won (1984)이 재표준화한 간이정신진단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9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체화(12문항), 강박증(10문항), 대인관계 예민성(9문항), 우울(13문항), 불안(10문항), 적대감(6문항), 공포불안(7문항), 편집증(6문항), 정신증(10문항) 등 9개의 하위영역으로 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지난 7일 동안 경험한 증상의 정도에 따라, '전혀 없다'는 0점, '약간 있다'는 1점, '웬만큼 있다'는 2점, '꽤 심하다'는 3점, 그리고 '아주 심하다'는 4점으로 응답하며, 점수가 많을수록 정신건강문제가 많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하위 영역에서의 총점과 영역별 비교를 위하여 문항수로 나눈 평균값을 함께 파악하였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Lim (1997)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7$ 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69~.88이었다.

### 3) 자아존중감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Rosenberg (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 SES)를 Yoon (2004)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0 문항이며, '매우 그렇다' (4점)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까지 4점 척도이다. 부정적 문항을 역산처리하며 점수가 많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Yoon (2004)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4$ 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84였다.

### 4) 대처유형

대상자의 대처유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Lazarus와 Folkman (1984)이 개발한 대처방식도구(Way of Coping Checklist)를 Kim과 Lee (1985)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

였다. 본 도구는 62개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이며, 문제중심적 대처, 정서중심대처,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 소망적 사고대처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 영역의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하위 영역에서의 총점과 영역 별 비교를 위하여 문항수로 나눈 평균값을 함께 파악하였다. 문제중심적 대처와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는 적극적 대처방식, 정서중심 대처와 소망적 사고 대처는 소극적 대처방식으로 분류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Shin (200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3$ 으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3~.90이었다.

####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하여 점수로 입력하여 SPSS/WIN 12.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자료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정신건강문제, 대처유형, 자아존중감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 부모의 문제음주 정도에 따른 집단 간의 일반적 특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chi^2$ -test을 하였다.
- 부모의 문제음주 정도에 따른 집단 간의 정신건강문제, 대처유형,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one-way ANOVA, 사후 검정은 Scheffé 검정을 하였다.
- 문제음주 부모 군의 정신건강문제, 대처유형,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Pearson’s correlation 으로 분석하였다.

## 연구결과

### 1. 부모의 문제음주 정도에 따른 집단 분포 및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비교

CAST-K의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부모의 문제음주 정도에 따라 집단을 분류한 결과, 비음주 부모 집단은 290명(53.5%), 사회적 음주 부모 집단은 118명(21.8%), 문제음주 부모 집단은 134명(24.7%)이었다.

각 집단에 따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Table 1), 부모의 결혼상태( $\chi^2=14.62, p=.001$ ), 대상자와 부모와의 관계( $\chi^2=22.96, p=.001$ ), 어머니의 직업( $\chi^2=19.28,$

$p=.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음주나 사회적 음주 부모 군에 비해 문제음주 부모 군에서 부모가 이혼이나 별거인 상태가 많았으며, 부모와의 관계도 나쁘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많았다. 또한 문제음주 부모 군에서 어머니의 직업이 판매나 생산직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많은 반면, 가정주부인 경우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일반적 특성, 즉 성별, 학년, 종교, 대상자의 거주상황, 형제와의 관계, 아버지 및 어머니의 교육상태, 아버지 직업, 가정 총 수입에 있어서는 부모의 음주 정도에 따라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2. 부모의 문제음주 정도에 따른 각 집단에서 정신건강 정도 비교

부모의 문제음주 정도에 따라 분류한 각 집단에서 정신건강 정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Table 2). 첫째로 정신건강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SCL-90-R에서 조사된 평균값을 문항수로 나눈 값으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비음주, 사회적 음주, 문제음주 부모 군 모두 강박증( $0.97 \pm 0.60; 0.97 \pm 0.57; 1.13 \pm 0.64$ )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대인관계 예민성( $0.84 \pm 0.65; 0.81 \pm 0.64; 1.05 \pm 0.69$ ), 우울( $0.71 \pm 0.61; 0.70 \pm 0.58; 0.94 \pm 0.68$ )이었다.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것은 공포불안( $0.26 \pm 0.37; 0.26 \pm 0.33; 0.33 \pm 0.45$ )이었다. 또한 대처유형도 조사된 평균값을 문항수로 나눈 값으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비음주, 사회적 음주, 문제음주 부모 군 모두 소망적 사고 대처유형( $1.50 \pm 0.53; 1.61 \pm 0.48; 1.56 \pm 0.47$ )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회적 지지추구( $1.44 \pm 0.56; 1.51 \pm 0.54; 1.51 \pm 0.59$ ), 문제중심 대처( $1.44 \pm 0.49; 1.50 \pm 0.47; 1.43 \pm 0.45$ ), 정서중심 대처유형( $1.19 \pm 0.38; 1.20 \pm 0.37; 1.25 \pm 0.36$ ) 순이었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은 비음주 부모군은  $36.7 \pm 6.04$ , 사회적 음주 부모군은  $37.3 \pm 5.88$ , 문제음주 부모군은  $35.3 \pm 6.22$ 였다.

### 3. 부모의 문제음주 정도에 따른 집단 간의 정신건강 정도의 차이 검증

부모의 문제음주 정도에 따른 집단 간의 정신건강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Table 3), 정신건강문제는 SCR-90-R의 전체 항목( $F=6.48, p=.002$ )과 강박증( $F=3.22, p=.041$ ), 대인관계 예민성( $F=5.76, p=.003$ ), 우울( $F=7.26, p=.001$ ),

**Table 1.** Differences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by Level of Parent's Drinking Problem

(N=542)

Characteristics	Categories	Total	Nondrinking parents group (n=290)	Social drinking parents group (n=118)	Problem drinking parents group (n=134)	$\chi^2$ (p)
		n (%)	n (%)	n (%)	n (%)	
Gender	Male	176 (32.7)	93 (32.1)	44 (37.3)	39 (29.1)	1.96 (.375)
	Female	366 (67.3)	197 (67.9)	74 (62.7)	95 (70.9)	
Grade	1	189 (35.1)	96 (33.1)	41 (34.7)	52 (38.8)	3.03 (.804)
	2	121 (22.3)	62 (21.4)	31 (26.3)	28 (20.9)	
	3	123 (22.7)	70 (24.1)	24 (20.3)	29 (21.6)	
	4	109 (19.9)	62 (21.4)	22 (18.6)	25 (18.7)	
Religion	Christian	251 (46.3)	142 (49.1)	51 (43.2)	58 (43.3)	5.53 (.238)
	Buddhism	42 (7.7)	24 (8.3)	5 (4.2)	13 (9.7)	
	No religion	248 (46.0)	123 (42.6)	62 (52.5)	63 (47.0)	
Living status	Living with parents	314 (58.3)	164 (56.9)	64 (54.2)	86 (64.7)	3.93 (.415)
	Living alone	94 (17.3)	49 (17.0)	23 (19.5)	22 (16.5)	
	Living in dormitory	131 (24.4)	75 (26.0)	31 (26.3)	25 (18.8)	
Parent's marital status	Living together	495 (92.1)	270 (94.1)	112 (95.7)	113 (84.3)	14.62 (.001)
	Divorce, separation	43 (7.9)	17 (5.9)	5 (4.3)	21 (15.7)	
Relation with parents	Bad	15 (2.7)	8 (2.8)	1 (0.8)	6 (4.5)	22.96 (.001)
	Moderate	84 (15.6)	42 (14.5)	15 (12.7)	27 (20.3)	
	Good	442 (81.7)	240 (82.8)	102 (86.4)	70 (52.2)	
Relation with siblings	Bad	11 (2.1)	7 (2.6)	2 (1.7)	2 (1.6)	8.26 (.082)
	Moderate	95 (18.6)	42 (15.5)	19 (16.5)	34 (27.0)	
	Good	406 (79.4)	222 (81.9)	94 (81.7)	90 (71.4)	
Father's education	Middle, high school	223 (41.6)	112 (39.0)	46 (39.0)	65 (48.9)	4.01 (.135)
	College	315 (58.4)	175 (61.0)	72 (61.0)	68 (51.1)	
Mother's education	Middle, high school	352 (65.5)	184 (63.9)	77 (65.3)	91 (69.5)	1.25 (.536)
	College	185 (34.5)	104 (36.0)	41 (34.7)	40 (30.5)	
Father's occupation	Adm., management	307 (58.6)	171 (61.1)	72 (61.5)	64 (49.2)	7.31 (.120)
	Sales, Production	209 (39.3)	105 (37.5)	43 (36.8)	61 (46.9)	
	None, etc	11 (2.1)	4 (1.4)	2 (1.7)	5 (3.8)	
Mother's occupation	Adm., management	88 (16.5)	41 (14.3)	25 (21.4)	22 (16.9)	19.28 (.001)
	Sales, Production	144 (27.1)	66 (23.1)	26 (22.2)	52 (40.0)	
	None, etc	301 (56.3)	179 (62.6)	66 (56.4)	56 (43.1)	
Total income of the family (10,000 won)	≤ 200	63 (11.8)	27 (9.5)	13 (11.0)	23 (18.3)	8.98 (.175)
	201~300	134 (25.3)	69 (24.2)	32 (27.1)	33 (26.2)	
	301~400	127 (24.3)	60 (24.2)	27 (22.9)	31 (24.6)	
	≥ 401	205 (38.6)	120 (42.1)	46 (39.0)	39 (31.0)	

Adm.=administration.

불안(F=6.19,  $p=.002$ ), 적대감(F=9.29,  $p<.001$ ), 편집증(F=5.00,  $p=.007$ ), 정신증(F=5.93,  $p=.003$ ) 항목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검정을 한 결과, 문제음주 부모군의 대상자가 비음주 부모군 및 사

회적 음주군보다 정신건강문제 전체항목과 대인관계 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정신증 항목에서 문제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편집증 항목에서는 문제음주 집단이 비음주 집단의 대상자보다 문제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Table 2.** Mental Health Problems, Coping Skills, and Self-esteem of Participants

(N=542)

Variables	Categories	Total	Nondrinking parents group (n=290)	Social drinking parents group (n=118)	Problem drinking parents group (n=134)
		M±SD <sup>†</sup>	M±SD <sup>†</sup>	M±SD <sup>†</sup>	M±SD <sup>†</sup>
Mental health problems	Total items	0.64±0.48	0.60±0.47	0.59±0.43	0.77±0.52
	Somatization	0.60±0.55	0.57±0.57	0.57±0.51	0.69±0.55
	Obsessive-compulsive	1.01±0.61	0.97±0.60	0.97±0.57	1.13±0.64
	Interpersonal-sensitivity	0.88±0.66	0.84±0.65	0.81±0.64	1.05±0.69
	Depression	0.76±0.62	0.71±0.61	0.70±0.58	0.94±0.68
	Anxiety	0.55±0.55	0.52±0.55	0.48±0.46	0.70±0.62
	Hostility	0.53±0.55	0.57±0.48	0.48±0.52	0.70±0.67
	Phobic anxiety	0.27±0.38	0.26±0.37	0.26±0.33	0.33±0.45
	Paranoid ideation	0.60±0.64	0.53±0.57	0.58±0.68	0.74±0.72
	Psychoticism	0.44±0.51	0.41±0.50	0.38±0.45	0.57±0.57
Coping methods	Problem focused	1.45±0.48	1.44±0.49	1.50±0.47	1.43±0.45
	Social support pursuit	1.47±0.56	1.44±0.56	1.51±0.54	1.51±0.59
	Emotion focused	1.21±0.37	1.19±0.38	1.20±0.37	1.25±0.36
	Wishful thought	1.53±0.51	1.50±0.53	1.61±0.48	1.56±0.47
	Active coping	2.91±0.90	2.88±0.92	3.00±0.87	2.94±0.87
	Passive coping	2.74±0.79	2.69±0.83	2.82±0.76	2.81±0.72
Self-esteem		36.5±6.01	36.7±6.04	37.3±5.88	35.3±6.22

<sup>†</sup>M±SD divided by number of item.

**Table 3.** Differences of Mental Health of Participants by Level of Parent's Drinking Problem

(N=542)

Variables	Categories	Nondrinking parents group <sup>a</sup> (n=290)	Social drinking parents group <sup>b</sup> (n=118)	Problem drinking parents group <sup>c</sup> (n=134)	F (p)	Post hoc
		M±SD	M±SD	M±SD		
Mental health problems	Total items	53.9±41.96	53.4±39.03	69.1±46.69	6.48 (.002)	a, b < c
	Somatization	6.9±6.79	6.9±6.08	8.3±6.66	2.44 (.088)	
	Obsessive-compulsive	9.7±6.03	9.7±5.68	11.3±6.44	3.22 (.041)	
	Interpersonal-sensitivity	7.6±5.86	7.3±5.80	9.5±6.18	5.76 (.003)	a, b < c
	Depression	9.2±7.87	9.1±7.54	12.2±8.79	7.26 (.001)	a, b < c
	Anxiety	5.2±5.47	4.8±4.60	7.0±6.17	6.19 (.002)	a, b < c
	Hostility	2.8±2.87	2.9±3.15	4.2±4.01	9.29 (<.001)	a, b < c
	Phobic anxiety	1.8±2.58	1.8±2.29	2.3±3.15	1.64 (.195)	
	Paranoid ideation	3.2±3.40	3.5±4.07	4.5±4.31	5.00 (.007)	a < c
	Psychoticism	4.1±5.02	3.8±4.46	5.7±5.70	5.93 (.003)	a, b < c
Coping methods	Problem focused	30.3±10.25	31.5±9.97	30.0±9.45	0.74 (.480)	
	Social support pursuit	8.6±3.34	9.1±3.21	9.1±3.55	1.20 (.301)	
	Emotion focused	27.5±8.81	27.6±8.50	28.8±8.31	1.09 (.339)	
	Wishful thought	17.9±6.35	19.3±5.81	18.7±5.64	2.24 (.107)	
	Active coping	39.0±12.46	40.6±11.86	39.1±11.33	0.87 (.422)	
	Passive coping	45.4±13.85	47.1±12.76	47.5±12.15	1.71 (.183)	
Self-esteem		36.7±6.04	37.3±5.88	35.3±6.22	3.97 (.019)	

강박증 항목에서는 다른 집단에 비해 문제음주 부모 집단의 점수가 더 높았으나 사후 검정 결과에서는 유의하지 않

았다.

또한 부모의 문제 음주 정도에 따른 대처유형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문제중심대처,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 소망적 사고 대처유형에서 모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대처유형을 적극적 대처유형과 소극적 대처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을 때에도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부모의 문제 음주 정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F=3.97, p=.019$ ), 사후 검정 결과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4. 부모가 문제음주 집단인 대상자의 정신건강문제, 대처유형,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분석

부모가 문제음주 집단에 속한 대상자의 정신건강문제와 대처유형,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Table 4), 정신건강문제와 소극적 대처유형 간에 정적 상관관계( $r=.28, p=.001$ )가 있었으며, 자아존중감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53, p<.001$ ). 즉 정신건강문제가 많은 대상자가 소극적 대처유형을 많이 사용하며,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과 적극적 대처 간에는 상관계수는 낮지만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r=.18, p=.042$ ),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적극적 대처유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신건강문제와 적극적 대처 유형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논 의

본 연구는 부모의 문제음주 정도에 따라 대학생 자녀의 정신건강 관련요인을 정신건강문제, 대처유형 및 자존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

자 한다.

본 연구에서 부모가 한국어판 알코올 자녀 선별검사(CAST-K)에서 6점 이상의 문제음주를 하는 대상자의 비율은 24.7%였다. 이는 대학생 대상자로 한 선행연구와 비교했을 때, Kim (2010)의 연구에서의 22.9%와 유사하지만, Kim (2007)의 연구에서의 33.2%, Kim (2006)의 연구에서의 34.3%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이다. 이는 Kim (2006)의 연구의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자료수집을 한 반면, 본 연구와 Kim (2010)의 연구는 수도권에서 자료수집을 하여 지역에 따라 문제 음주의 실태가 다른 점 등을 지적할 수 있겠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자료수집을 한 Kim (2007)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의 결과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였으므로, 지역적 특성 이외의 다른 요인들에 대한 탐색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부모의 문제음주 정도에 따른 집단 간의 일반적 특성에서는 부모의 결혼 상태, 부모와의 관계, 어머니 직업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문제음주 부모 군인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부모가 이혼이나 별거를 한 경우가 많았으며, 부모와의 관계가 나쁘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아 가족구조와 기능면에 있어서 부정적인 면을 알 수 있다. 또한 문제음주 부모 군인 경우 어머니 직업이 판매직이나 생산직이 많았고 가정주부인 경우는 적은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가 가사 일에 집중하는 시간이 적으며 자녀들의 의존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운 가족환경임을 반영한다. 본 결과는 선행연구(Furtado, Laucht, & Schmidt, 2002; Kim, Jeon, Choi, & Kim, 2010)에서도 문제음주 부모가 있는 가족의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며 부부갈등과 부정적인 생활사건이 빈번한, 정서적으로 열악한 가정환경임을 보고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이와 같이 부모의 문제음주는 가족기능 및 가족의 정서적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문제음주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구성원 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갈등관리를 위한 중재가 필요하다.

대상자의 정신건강문제는 SCL-90-R에 의한 점수에서 문항 평균값이 전체 대상자 집단은  $0.64 \pm 0.48$ 점이었고, 문제음주 부모군에서는  $0.77 \pm 0.52$ 점이었다. 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Hyun, Nam과 Kim (2008)의 연구에서는 전체 대상자 집단에서는 1.69점, 문제음주 부모군의 대상자에서는 1.95점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의 대상자의 정신건강문제 정도가 낮았다. 이와 같은 차이는 대상자의 발달단계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대학생인

**Table 4.** The Relationships among Mental Health Problems, Coping Styles, and Self-esteem in Problem Drinking Parents Group (N=134)

Variables	Mental health problem	Active coping	Passive coping
	r (p)	r (p)	r (p)
Active coping	.13 (.133)		
Passive coping	.28 (.001)	.60 (< .001)	
Self-esteem	-.53 (< .001)	.18 (.042)	.05 (.541)

본 대상자는 규율과 규범에 따라 정해진 시간표에 맞추며 입시위주로 생활하던 중고등학생과는 달리 새로운 대처유형이나 스트레스 관리기법들이 좀 더 발달하여(Kim, 2007), 정신건강문제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부모가 알코올 의존 환자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Hansson, Rundberg, Zetterlind, Johnsson과 Berglund (2007)의 연구에서 0.81~1.03점으로 보고된 결과와 비교할 때, 본 연구에서 문제음주 부모군의 대상자가 더 낮은 정신건강문제 점수를 보이는 하였으나, 이는 본 연구의 비음주 부모군에 비해서는 높은 점수이므로 문제음주 부모를 둔 자녀의 정신건강증진에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SCL-90-R의 하위영역별로 보면, 세 집단 모두 강박증, 대인관계 예민성, 우울 등의 점수가 높았다. 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Hyun 등(2008)과 Yang과 Lee (2005)의 연구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200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하지만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Pai (2005)의 연구에서는 적대감이 두 번째로 높은 점수인 것으로 나타나 다소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 점에 대해 Pai (2005)는 사춘기에는 강박증, 적대감, 대인예민성 등의 정서문제가, 대학교 시기에는 우울이나 불안 등의 정서문제가 나타나며, 강박증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정서문제라고 설명하였으며, 발달단계에 따라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정신건강문제가 다르므로 차별화한 프로그램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또한 Liberman (2000)은 강박증, 예민성, 우울과 같은 내향적인 문제행동은 ACOA들이 자신의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self-medicated)로 물질을 남용하려는 성향이 많다고 지적한 바 있어, 향후 ACOA들의 물질남용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부모의 문제음주 정도에 따라 분류한 집단 간의 정신건강문제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전체 정신건강문제 점수와 대부분의 세부 하위영역에서 문제음주 부모군의 대상자가 비음주 및 사회적 음주 부모군의 대상자보다 정신건강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기존연구(Hansson et al., 2007)에서 ACOA 집단이 non-ACOA 집단보다 행동적 문제 및 정서적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뒷받침한다. 또한 문제음주 부모군의 대상자에게 대인관계 예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ACOA들이 편안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도 보다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또래와의 관계 뿐 아니라 결혼한 이후에도 부부만족도가 더 낮은(Kearns-Bodkin & Leonard, 2008) 것으로 보고된 바

있어, 이들이 만족스러운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중재가 필요하다.

그리고 부모의 문제음주 정도에 따라 분류한 집단 간의 대처유형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non-ACOA에 비해 ACOA들이 행동이탈이나 문제의 부정, 회피적 대처행위와 같은 부정적 대처유형을 보이는 등 건설적인 대처기전이 부족하다고 보고한 선행연구(Amodeo, Griffin, Fassler, Clay, & Ellis, 2007; Klostermann et al., 2011)와는 차이가 있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다른 ACOA들보다 정신건강문제 점수는 낮고 자아존중감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ACOA들보다 적응 및 대처를 잘하고 있는 집단의 특징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추후에는 좀 더 대표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비음주 부모군은  $36.7 \pm 6.04$ 점, 사회적 음주 부모군은  $37.3 \pm 5.88$ 점, 문제음주 부모군이  $35.3 \pm 6.22$ 점이었으며, 부모의 음주 형태에 따라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사후 검정을 한 결과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와 비교하면,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등(2010)의 연구에서는 ACOA의 자아존중감이 29.2점, 호주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Neill과 Proeve (2000)의 연구에서는 30.5점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하지만 ACOA들이 non-ACOA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난 선행연구(Kim, 2010)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반면에 COA들에게서 오히려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보였다고 보고한 연구(Gavriel-Fried & Teichman, 2007)와는 차이가 있다. Gavriel-Fried와 Teichman (2007)은 부모의 알코올중독으로 발생하는 난관들을 극복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대처기전을 사용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또래들보다 조기 성숙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한 바 있어,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Rangarajan (2008)은 자아존중감이 부모의 음주 문제로 인해 자녀에게 끼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한 바 있어, ACOA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목적으로 한 중재가 필요하다.

한편 부모가 문제음주 집단에 속한 대상자의 정신건강문제, 대처유형,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신건강문제가 많을수록 소극적 대처유형을 많이 사용하며, 자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COA들의 정신건강문제와 대처유형간의 관계를 확인한 선행연구는 아니지만 ACOA들을 대상으로 한 Klostermann 등(2011)의 연구에서 ACOA들이 non-ACOA보다 회피적인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하며, 정신건강문제가 많다고 보고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 점에 대해 Klostermann 등(2011)은 소극적인 대처전략을 사용하는 경우 생활사건이나 스트레스로부터 받는 영향력을 중화시켜줄 수 있는 매개변인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문제가 많다고 제시한 바 있어 ACOA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적극적인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하도록 돕는 중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정신건강문제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Neill과 Proeve (2000)가 지적한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이 스트레스 상황과 정신건강 및 대처 간에 매개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ACOA들의 자아존중감을 보호하거나 강화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적극적 대처방식 간에는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었으나, 소극적 대처방식과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이는 여성 ACOA를 대상으로 한 Amodeo 등(2007)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적극적인 대처유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이 건설적인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한 Neill과 Proeve (2000)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이에 대해 Neill과 Proeve (2000)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은 자기효능감이나 내적 조절감이 낮아 성공적인 경험을 가질 기회가 적으며 이로 인해 건설적이지 않은 대처유형을 선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됨을 지적한 바 있어 ACOA의 자아존중감 향상이나 건설적인 대처유형의 적용을 도와줄 수 있는 중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다른 선행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문제음주집단이 적고 자아존중감은 높은 특성을 보였으며,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본 연구결과는 타 지역의 있는 대학생에게 일반화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알코올 중독자의 성인 자녀들의 알코올이나 물질 관련 문제 실태를 파악하는 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또한, 부모의 문제음주 뿐 아니라 부모의 성격요인 등 다른 요인들을 포함한 탐색연구를 제언하며,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종단적 연구와 이들의 발달양상 및 발달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

를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이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호요인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결론

본 연구는 부모의 문제음주 정도에 따른 대학생 자녀의 정신건강문제, 대처유형, 자아존중감을 파악하여, ACOA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 문제음주 부모 군의 대상자가 비음주나 사회적 음주 부모군에 비해 정신건강문제가 많았으며 자아존중감이 낮아 ACOA들이 non-ACOA보다 정신건강 상태가 부정적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부모의 문제음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자녀가 성장한 이후에도 지속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아동·청소년 COA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성장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문제음주 부모군의 정신건강문제, 대처유형,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정신건강문제와 소극적 대처유형과는 정적 상관관계, 자아존중감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변인들 간의 상호연관성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ACOA들의 정신건강문제를 다루기 위해 자아존중감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대처유형을 훈련하는 중재가 필요하다.

## REFERENCES

- Amodeo, M., Griffin, M. L., Fassler, I., Clay, C., & Ellis, M. A. (2007). Coping with stressful events: Influence of parental alcoholism and race in a community sample of women. *Health and Social Work, 32*(4), 247-257.
- Cho, H. H., Chun, Y. M., & Hyun, M. H. (2008). The effect of parental problem drinking on daughter's compulsive eating: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ACOA trait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3*, 833-851.
- Derogatis, L. R. (1977). *The SCL-90 manual: Scoring, administration and procedures for the SCL-90*. Baltimore: John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Clinical Psychometrics Unit.
- Ellis, D., & Zucker, R. (1997). The role of family influences in development and risk. *Alcohol Health & Research World, 21*(3), 218-226.
- Furtado, E. F., Laucht, M., & Schmidt, M. H. (2002). Psychological symptoms in children of alcoholic fathers. *Zeitschrift für Kinder-und Jugendpsychiatrie und Psychotherapie, 30*(4), 241-250.
- Gavriel-Fried, B., & Teichman, M. (2007). Ego identity of adoles-

- scent children of alcoholics. *Journal of Drug Education*, 37(1), 83-95.
- Hasson, H., Rundberg, J., Zetterlind, U., Johnsson, K. O., & Berglund, M. (2007). Two-year outcome of an intervention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who have parents with alcohol problems: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31, 1927-1933.
- Hussong, A. M., & Chassin, L. (2004). Stress and coping among children of alcoholic parents through the young adult transit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6, 985-1006.
- Hyun, M. S., Nam, K. A., & Kim, M. A. (2008). A study on parents' drinking behaviors and the mental health of their adolescent offspring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7, 392-402.
- Jones, J. W. (1983). *The children of alcoholics screening test and test manual*. Chicago: Camelot Unlimited.
- Kearns-Bodkin, J. N., & Leonard, K. E. (2008). Relationship functioning among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and Drugs*, 69, 941-950.
- Kim, H. K. (2010). *The resilience of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among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ha University, Incheon.
- Kim, H. R., Jeon, S. Y., & Kim, J. H. (2004). The relationship of father's alcoholism, family functioning and parental attachment to the psychosocial adjustment among the adult daughters of alcoholic father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6(4), 317-343.
- Kim, H. S. (2003). The relationship among personality type, self-esteem, and mental health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2, 385-393.
- Kim, J. H. (2007). The college adjustment of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1, 103-138.
- Kim, J. H., & Lee, C. H. (1985).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coping methods and depression*. Seoul: Korea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for Behavior Science.
- Kim, J. H., Jeon, S. Y., Choi, Y. S., & Kim, H. N. (2010). Spirituality and subjective well-being of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in university. *Journal of Korean Alcohol Science*, 11(1), 103-115.
- Kim, K. I., Kim, J. H., & Won, H. T. (1984). *Symptom checklist procedure manual*. Seoul: Chungang Jeoksung.
- Kim, M. J. (2006). *The effects of ACOA traits on drinking problems among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 Kim, M. R., Chang, H. I., & Kim, K. B. (1995). Development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Children of Alcoholics Screening Test (CAST-K): A reliability and validity study.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34, 1182-1192.
- Klostermann, K., Chen, R., Kelley, M. L., Schroeder, V. M., Braitman, A. L., & Mignone, T. (2011). Coping behavior and depressive symptoms in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Substance Use & Misuse*, 46, 1162-1168.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Lieberman, D. Z. (2000). Children of alcoholics: An update. *Current Opinion in Pediatrics*, 12, 336-340.
- Lim, K. H. (1997). Psychometric illumination of SCL-90-R: Focused o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1(1), 157-189.
- Neill, L., & Proeve, M. (2000). Ethnicity, gender, self-esteem, and coping styles: A comparison of Australian and South-East Asian secondary students. *Australian Psychologist*, 35(3), 216-220.
- Pai, H. J. (2005). The mental health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with alcoholics and con alcoholics' famil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4, 240-249.
- Park, J. S., & Yang, S. (2005). Study on alcoholic couples' communication types and efficienc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4, 231-239.
- Rangarajan, S. (2008). Mediators and moderators of parental alcoholism effects on offspring self-esteem. *Alcohol & Alcoholism*, 43, 481-491.
- Rosenberg, M. (1965). *Society at the adolescent self-esteem*.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hin, H. D. (2006).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self-efficacy on the ways of coping stress and social problem-solving ab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wangwoon University, Seoul.
- Yang, S. H., & Lee, P. S. (2005). The effects of a stress management program on mental health and the coping behavior for the children of alcoholic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 77-86.
- Yoon, M. H. (2004). *A study on mu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body image and the self-esteem according to Sasang physical constitutions of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